

사립

은 권용승 김이선 가람 하람 다현 가족의 소식지입니다.

2020. 06. 02

캄보디아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약백가정 소식입니다. 저희는 지난 6년 반의 캄보디아 생활을 정리하고 금요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에 맞춰 귀국을 하지만 한국에서 연로하신 장모를 근거리에서 돌봐야 하고, 다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3년은 머물예정이어서 조기는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캄보디아 시골마을로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꿈이 없지는 않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후를 어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선교적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약속 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 하람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프놈펜기술학교는 여전히 휴교중입니다. 캄보디아 내 확진자수가 124명에 불과하고, 122명이 완치되었고 아직 치료중인 환자가 2명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휴교와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SNS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졸업때까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휴교에 따른 정부기관의 행정절차가 순리롭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에는 그동안 함께 수고한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학교에 나가 온라인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유월 둘째주에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다현이는 아직 수업을 받고 있고, 하람이는 졸업반이라 졸업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느라 바쁩니다. 어제 6월 1일에는 졸업반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만 모여 조출한 졸업식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 (GSIS)에 2년 계약으로 교사자리를 찾았습니다. 선교사자녀 학교로 시작한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국제학교인 대전크리스찬국제학교 (TCIS) 교장선생님이 2007년도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세운 학교의 운영을 맡아 기독교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모로 다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홈국제학교와 환경이 비슷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학교에서 실비에 숙소도 제공해주어서 저희가 다시 한국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원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람이는 현재 부천에 있는 고모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6월 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학년말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람이는 런던에 있는 두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7월초 IB 성적이 나오면 입학조건을 만족하는 학교를 택하게 됩니다. 경영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람이도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가 9월초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이들 모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6월 6일 한국에 도착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됩니다. 용인에 있는 후배 가정이 집을 비워주셔서 그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자가격리를 마친후에 드리겠습니다.

+++++ 후 원 중 단 안 내 +++++

그동안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에도 후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한국 내에서 일자를 찾았고 저도 일자를 찾을 예정이어서 후원중지 요청을 드립니다. 금년말까지 후원을 계속해 주시면 저희가 한국에 재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목적인금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후원을 중지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동이체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지난 27년동안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신 교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격려해제되는대로 교회를 찾아 귀국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아이디 4yskwon

매일성경 <https://quietwatersweb.wordpress.com/>